

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배포일자	2022년 3월 8일(화) 총 4매		 환경특별시 인천	
담당 부서	문화유산과	담당자	• 문화유산정책팀장 • 담당자	오동철 ☎440-4471 권오정 ☎440-4472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**로마시티, 제물포구락부에서 떠나는 로마 역사여행**  
 - 7.17.까지, 제물포구락부 2022년 첫 번째 기획전시 -  
 - 에스프레소 문화체험, 재즈감상회, 북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 -

근대개항의 관문이었던 제물포에서, 로마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.

인천광역시는 인천시 문화유산 활용정책 1호 공간이자 자주적 개항의 상징적 서사 공간인 제물포구락부(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7호)에서 2022년 첫 번째 기획 전시 “로마시티, 제물포구락부에서 떠나는 로마 역사여행” 을 오는 7.17.(일)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전시는 로마가 세계의 모든 길이 향했던 글로벌 도시였다면 제물포는 근대개항의 모든 길이 시작되었던 국제도시로 두 도시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은 달랐으나 시간과 이야기가 역사의 흔적으로 곳곳에 남아있다는 공통점이 있다.

그런 만큼 로마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서양 각국과 조선이 혼재된 제물포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제물포구락부에서 열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.

전시회는 일러스트레이터 이상록 작가의 책 <로마 시티 ROME CITY (출판 : 책과함께)>에 수록된 일러스트 300여점 중 100여점을 엄선했으며, 이와 더불어 미 수록 스케치, 인천시민들이 직접 보내온 추억의 로마여행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구성했다.

전문 역사 연구자보다는 낯선 도시를 걷는 여행자의 입장에서 유적과 유물로 연결된 로마의 현대성을 음미할 수 있다. 제국의 수도였던 역사 속 로마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활기찬 도시 로마를 함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.

특히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에스프레소의 역사부터 시음까지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문화체험, 해설이 있는 이탈리아 재즈 감상회, 이탈리아 배경의 영화 감상회와 함께 <로마 시티 ROME CITY> 이상록 작가 북콘서트, 관련 전문가 초청 인문학 아카데미와 아트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 될 예정이다. 또한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과 사연을 접수 받아 온·오프로 전시하는 시민 참여 이벤트도 함께 한다.

현재는 과거를 토대로 존재하고 미래는 현재의 모습에서 가늠할 수 있다. 그런 점에서 이번 전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작은 위로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

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.

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“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 인천 역사, 문화와 정신의 중심지였던 개항장의 과거 전성기 때의 명성을 이어가길 바라는 염원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일상에 활력충전을 기원하다” 며 “제물포구락부, 인천시민애집, 소금창고, 이음1977, 자유공원과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등이 모여 있는 개항장 송학동 역사산책공간이 인천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유일무이한 공간(Unique Vanue)으로 가꿔나갈 계획” 이라고 말했다.

자세한 내용은 제물포구락부 홈페이지(<https://jemulpoclub.com/rome>)를 참고하거나, 전화(☎ 032-765-0261)로 문의하면 된다.

<사진> 전시회 포스터

[붙임1] 로마시티-제물포구락부에서 떠나는 로마 역사여행 포스터 등

